

보도설명자료 (‘19. 11. 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에어컨 효율등급 조정은 측정값이 왜곡되는 기존의 불합리한 시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음
(한국경제 11.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에어컨 효율등급 조정은 측정값이 왜곡되는 기존의 불합리한 시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음
- ◇ 11월 1일 한국경제 <자취 감춘 “1등급 에어컨”... 정부의 안이함이 불러온 기현상>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정부가 사전에 면밀한 시장분석없이 제도 변경을 추진하여 제조업체와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옴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정부는 기업의 에너지 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어컨 등 효율등급품목에 대한 등급 기준을 2~3년 단위로 조정하고 있음
- 그 중 스탠드 에어컨의 경우 기존 시험방식으로는 효율 측정값이 왜곡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국제표준 시험방법을 도입함*

* 기존에는 저온 영역대(29도 이하)에서 최적 운전(효율값 향상)이 되도록 설정 가능 (1-2등급 비중 62% 차지) → 저온 영역대에서 일정한 기준값(계수)을 부여하여 시험 조작을 제한

- 이러한 시험방법 변경으로 인해 동일 제품 효율수준이 20~30%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, 업계는 새로운 기준을 단기간에 달성할 수가 없어 현재 3등급 이하 제품만 출시되는 상황임

- 산업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(8.21)에 발표한 바와 같이, 20년부터 기술개발 전망, 효율향상 효과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 등급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유성우 과장(044-203-5140)
이주영 사무관(044-203-5141), 양율승 사무관 (044-203-5146)